

특혜논란·방만경영 ... 고창군 대형 사업 잇단 파열음

78억 황토배기사업 관리부실 ... 자본 잠식 진행

240억 생태지구 조성사업 민원 몰살 ... 공사 중단

682억 일반산단 유치권 분쟁 ... 1년넘게 완공 지연

고창군이 추진중인 각종 국가정책 사업과 민간보조사업들이 특혜논란과 방만경영, 악성민원 등으로 파열음을 내면서 지역의 미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후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을 해도 부족할 시점이지만, 악성민원과 법정분쟁 등으로 주요 사업이 중단·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 행정에 대한 체질개선은 물론 강도높은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정책 및 민간보조 사업 중 5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 법적분쟁으로 산단조성 차질... 잡초만 무성 = 고창군은 총사업비 682억원에 생태탐방로·생태관찰시설·생태대 84만8800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완공기한(2014년 6월)을 넘긴 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시공사인 S토건이 지난 8월 고창 일반산단 공사장 부지에 대한 유치권(留置權)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S토건은 고창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부지를 유치권 점유하고 있다. 고창군과 S토건은 흙을 쌓는 토목공사 과정인 성토(盛土)과정에서 성토 반입물량 등을 놓고 갈등이 생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S토건이 고창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공사 중지여에 반발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군민 3247명 자금 모아 설립한 고창황토배기사업은 자본잠식 =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최초 시·군유통회사인 '고창황토배기유통법인'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채 자본 잠식이 진행중이다. 지난 2008년 대주주이자 기관 투자자

인 고창군과 4개 지역 농협,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군민 3247명의 주식청약과 유상증자를 통해 모은 자본금 총 78억원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자본은 손실을 봤다. 남은 10억원의 자본금도 고추 수매자금 담보 대출 등으로 묶여있는 등 자본 잠식 상태다.

관리부실과 방만경영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개선은커녕 여전히 법외직원 급여 등으로 연간 수익원이 지출되고 있다. 실제 고창황토배기유통법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고구마 대금 과다지급과 고추유통 운영관리 소홀, 농산물 정산 미이행, 외상매출 장기 미수금 등 채권관리 소홀을 비롯한 용역사업비 부적정, 시설물·재고품 관리 소홀, 법인 신용카드 관리 소홀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국가사업인 생태지구 조성사업도 공사 중단 = 고창군은 총 공사비 240억원을 투입해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현장 인근에서 양만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이 고창군에 양만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달여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미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사업이지만, 일단 민원부터 해결한 뒤 공사를 재개하려며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양만장 이전 비용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민원을 제기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민원인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

기한 것"이라며 "특히 정식민원도 아닌 전화상으로 우려감을 제기한 것 뿐인데도,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2억원 들인 북분자 농공단지엔 북분자 업체 단 한곳도 없 = 고창군의 신성장 산업단지 농림수산식품부 선정사업으로 지난 2013년 완공된 북분자 농공단지(19만6000㎡)는 현재 북분자 관련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은 북분자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북분자 와이너리 체험 등 관광 산업과 북분자 가공, 생산 및 전문유통업체 등을 유치하겠다고 조세사업비만 총 122억원(국비 4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7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인삼맥주사업체 등 식품관련 업체 4곳만 입주한 상태. /고창=고훈석기자 ghs@

운곡습지 인근 에코촌·생태체험장 조성

고창군 생태관광 활성화 총 300억 투입키로

고창군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주년을 맞아 생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집중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기본목표인 '생물 다양성 증진'과 함께 생태관광산업과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고창군은 2018년까지 35억원을 들여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주변의 용계마을 일대에 친환경 숙박·관광·휴게 시설을 갖춰 체류형 생태관광을 할 수 있

는 '에코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024년까지 모두 73억원을 투입해 생태탐방로·생태관찰시설·생태체험교육장 등을 만든다.

고창군 자체사업으로는 62억원을 들여 생태숲길·숲 전망대 등 운곡습지 주변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만드는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운곡습지와 주변의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모두 1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창군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임산품과 가공품에 대해 '고



박우정(왼쪽에서 세번째) 고창군수 등이 최근 고창지역 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생태탐방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창생물권보전지역'이란 브랜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농업·가공·관광 등 1·2·3차산업을 연계한 6차산

업화를 추진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남원시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주력

남원시가 인생 100세 시대를 대비해 지역 어르신들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도시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습 욕구 충족, 여가 활용, 취업 연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만4000여명의 시민이 자치사랑방, 읍면 평생학습센터(9개소)를 비롯한 80여개의 평생학습기관·단체에서 배움을 통한 제2의 인생 설계를 하고 있다.

남원시는 평생학습관, 자치사랑방(8개소), 읍면 평생학습센터(9개소), 실과소 평생교육기관(7개소), 관내 평생교육 기관 및 남원시노인복지관을 비롯한 28개 단체에서 댄스·스포츠·요가·노래·풍

물고실, 인문학·독서 친화·건강 관리·성인문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선정·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이집, 판소리, 악기, 시낭송, 한지공예 프로그램 및 동아리 14개소가 지원을 받아 활발히 활동중이다.

남원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평생학습지도까지 제작·배포하고 있다.

남원시는 특히 시민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춘향골 아카데미 시민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운 국내 최고의 명사의 초청 강연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129차례 열렸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백제문화 재조명' 전주박물관 오늘 학술포럼

전북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 등 백제문화를 재조명하는 학술포럼을 3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연다.

'백제문화유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이 학술포럼은 백제·후백제의 패망 등으로 부정적이고 왜곡된 역사 이미지를 떨치고 전북의 정신과 자존심을 살리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백제문화유성과 미륵사지(운덕항 호남문화재연구원), 르네상스 백제의 땅 전북(조병중 우석대교수), 고고학으로 본 후백제의 역동성(곽장근 군산대학교 수), 백제문화유성 비전과 과제(최희수 상명대학교 수) 등이 발표된다.

또 포럼은 백제와 후백제의 역사 문헌과 유적·유물, 유적의 보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박진표기자 lucky@

전북도 우수 암소 선발 집중관리

전북도는 2일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암소에 대해 유전능력을 조사해 우수한 개체들만 별도로 선발·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한 유전능력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우수 암소와 그 후대 송아지도 관리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투자해 시행한다.

3만2000마리를 선발하고 불량 암소를 도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한우협회, 가축재향협회, 농·축협, 전북대 등이 참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우개량은 주로 씨수소를 중심으로 개량이 이뤄졌다"면서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를 개량하면 품질고급화는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이환주 남원시장이 최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2회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에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선보인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양호 매3억 5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정포 대지 315㎡ 입아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매 5억9천)

농지 / 임야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매5억8천만원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매7억6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4,000㎡ 혁신도시인근 매2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감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3억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신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매7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춘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4천만원
7. 나주시 다도면 풍신리 감나무 과수원 8,664㎡, 담 2,299㎡, 목 1,260㎡, 임야 17,813㎡ 매9억원
8.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담7,610㎡ 2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1억9천만원
9.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10.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11.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1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원
12.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매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광안구 지족동 2529㎡ 공시지가 2억 매도 2억 3천
- 시내 호텔 대지 923㎡, 건평 2296평, 지하 2층 지상 12층 객실 45실 등 요양병원 등 적합 (은행 24억 매도 45억)
- 광안구 월계동 APT 상가동 지하 945㎡ 시설 좋은 목욕탕 감정가 9억6백 은행등 5억 개인사업에 적합 교환가능 7억
-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 떨어진 독립식 별장, 전원주택지, 요양시설등 적합, 공시가 2억6천 감정 5억3천선 매도 3억6천

투자 / 매도 / 교환

- 대인시장 입구 대지 394㎡, 건평 1455㎡, 전제2층, 월700선 15억5천
- 화순군 춘양면 용우리 계획관리지역 6589㎡ 전원주택 · 요양시설 공장·목장 등 다용도 매도 6억9천
- 나주시 남평 도로접 833㎡ 창고 · 식당적합 1억5백
- 순창군 북흥면 면사무소 인근 백암사, 내장사, 추월산 모두 10분 거리 전원생활 특색있는 식당 · 찻집 등 적합 대지 991㎡ 5600만원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편선 적합지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전원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평 73㎡ 9500만원
- 담양읍 APT 부지 2층 주거지 4838㎡(1463평) 은행7억 매도 15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자연녹지 1861㎡ 가든 · 별장등 적합 1억3천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편선 · 전원주택 적합 5000㎡ 평당 10만원
- 영암군 삼호읍 삼암지 730㎡ 무인텔, 원룸 등 적합 평당 160만원
- 남구 덕남동 그린벨트 입과담 89817㎡(27.69평) 건물허가 449㎡(438평)
-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도로접 1884㎡ 공장 등 적합 2억 9천
- 광산구용동 평동중학교, 평동공단 부근 1층주거지 1787㎡ 빌라 · 원룸 등 적합 공시지가 4억 매도 평당 115만원(6억2천)

임대

- 지하철 금남로 4가역 접한 건물 2층 94평 (3천에250) 4층 60평 (천에100)
- 지하철 금남로 47가역 접한 건물중의 5층 367㎡ 상형외과 했던곳 병의원 임대 (6천에230) 1층 59㎡ 카페숍 등 적합 (5천에13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충장로5가 광주은행과 수협 부근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북구 오룡동 8층근린시설 첨단산업단지내 대지1652.9㎡ 건물2991.3㎡ 건물상태양호 감정가35억4천2백 최저가9억8천3백 감정가의56%
- ★화순군 동면 언도리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토지146411㎡ 건물3290㎡ 화순읍에서5분거리위치 감정가84억4천3백 최저가37억7천8백 감정가의45%
- ★북구 두암동 쌍둥이주유소부근 지하층~지상4층 대지386㎡ 건물1,132㎡ 접근성,가격★★★★★ 건물리모델링중, 왕복4차선도로접 코너입지 감정가10억4천9백 최저가7억3천4백 감정가의70%
- ★나주시 경현동 지하층~지상2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감정가30억6천5백 최저가17억1천6백 감정가의56%
- ★서구 마름동 주유소 광주아울렛뒤편 대지1132㎡ 건물277.9㎡ 2층건물 감정가 9억9천6백 최저가 6억9천7백 접근성,광고효과★★★★ 감정가의70%

※전지역 병원(부지)매매,매입 상담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개인병원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급증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부동산재테크 연구소장 이은진 추천물건

법원경매매정정보

전국 무료사이트

투데이옥션
1899-9071
하프옥션
공정 감정대비 30%~70%

투데이옥션
NAVER 하프옥션